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20. Vol. 31. No. 1 pp. 289~315.
ISSN 1225-636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20.31.1.289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이응택** · 오승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체험활동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양적인 부분으로 참여시간, 질적인 부분으로 참여만족도로 구성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7차 년도(2016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체험활동에 참여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총 1,062명(남학생 487명, 여학생 575명)이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험활동 만족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체험활동 만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체험활동 만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체의식은 체험활동 만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지녔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 참여시간 보다는 만족도가 학교적응의 관계를 더 잘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보다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설명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체험활동 만족의 중요성과 공동체의식을 매개로한 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체험활동,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매개효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 (KCYPS 2010)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으로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강의전담, 제1저자
***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 교신저자, osg87@mjc.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청소년들이 함양해야 할 지식을 배우는 곳임과 동시에 청소년기 사회화를 이루는 중요한 환경이다. 학교에서는 친구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나아가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역동과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성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규칙과 질서 등을 준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성을 습득하는 곳이 학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학교적응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며(성경주, 김재철, 2017), 주의집중, 공격성과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행동이 예방한다(김지혜, 유난숙, 2019). 최근에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으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 이유는 청소년기 학교부적응은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활과 성인기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많은 연구들은 가족, 또래, 심리적 변인 등의 요인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체험활동 역시 학교적응에 효과적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고, 직업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던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관우, 남진열, 2011). 이처럼 청소년기 봉사활동(이경혜, 김혜인, 2018), 동아리활동(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등의 다양한 활동 경험은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체험활동 참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몇몇 연구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삶의 만족이 높아 학교에 잘 적응하고(박진화, 2017), 체험활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면서 학교적응이 증진된다고 보았다(최경옥,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체험활동 참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하고(주계순, 권일남, 2018), 체험활동 참여경험은 자아탄력성을 높여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유춘옥, 박갑준,

김승환, 2015). 이처럼 청소년기 체험활동 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은 소속감이나 헌신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Sarason, 1977) 적응과 관련이 깊고, 자아탄력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오정아, 2019).

그러나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 혹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몇몇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체험활동을 양과 질적인 부분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체험활동 참여정도와 체험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지혜, 2012; 박주현, 이태자, 2015). 따라서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역시 체험활동 참여정도나 만족도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크기를 비교하여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매개변인이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비교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두 매개변인을 비교하여 어떤 변인이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을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체험활동 만족도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체험활동 만족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적응

학교부적응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동반하게 되는데 학교폭력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학업중단까지 직결된다. 학교적응 유연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높으며(정순복, 양정남, 2014). 지각, 결석, 과제 미수행 등의 부적응 행동은 잠재적 학업중단을 높이는 것으로(조선경, 이응택, 이은경, 2016)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높고, 향후 대학생활이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 중 하나가 체험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청소년기 체험활동은 학교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김민선(2019)은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외적발달자산으로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거론하였으며, 체험활동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구지윤과 김유나(2016) 역시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다양한 개인 수준의 통제변인을 투입하고도 체험활동은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보았다. 체험활동 유형에 따른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봉사활동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이고(이경혜, 김혜인, 2018; 차한솔, 김주일, 2015), 가족여가활동 역시 학교적응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송진숙, 2018).

그러나 최근 체험활동 연구에서는 체험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험활동을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체험활동의 질적인 부분이 중요한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박주현과 이태자(2015)는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체험활동 만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지혜(2012) 역시 봉사활동 참여시간과 봉사활동 만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고 제시하였다. 이 결과들은 체험활동 참여수준이나 시간 그리고 체험활동 만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의미한다. 이응택, 곽현과 이은경(2016) 역시 체험활동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로 참여정도보다는 만족도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본 연구는 체험활동을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체험활동 만족으로 구성하여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기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그 이유는 체험활동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정서조절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집단에서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하고(박진화, 2017),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어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최경옥, 2019). 그리고 청소년기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동체의식이 높아짐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주계순, 권일남, 2018), 스포츠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에 잘 적응한다(유춘옥 외, 2015). 이처럼 청소년기 체험활동 참여는 청소년기 다양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집단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학교적응은 집단에서 나타나는 역동과 유동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요소가 바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이다. 공동체의식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헌신을 의미하는 것(Sarason, 1977)으로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높다. 그 예로 공동체의식은 학업성취와 결석에 영향을 미치고(Sanchez, Colon & Esparza, 2005), 우울(McLaren, Schurmann & Jenkins, 2015)과 공격성 및 분노(Newman, Lohman & Newman, 2007) 등의 정서문제와도 관련성이 높다. 국내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이 높으면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배화옥, 김현정, 2019).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교적응과 관련이 깊다(이윤주, 2004; Block & Block, 1980; Masten, 2001).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업성취가 높고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으며(Compas et al., 1995), 대인관계에서도 자기표현이 잘 이루어지면서(Klohnen, 1996) 학교에 잘 적응

하게 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적 정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능력이 뛰어나(Letzring, Block & Found, 2005) 학교적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정아(2019)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중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 학교생활은 수업 이외에 학교환경과 또래 그리고 교사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잘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집단의 소속감과 또래 간 상호헌신 등의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며, 집단에서 나타나는 역동과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위한 주요변인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몇몇 선행연구들은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유춘옥 외, 2015; 주계순, 권일남, 2018).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학교적응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이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뿐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을 상호 고려하지 못하였다.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비교하는 것은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체험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순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공변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연구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에 의한 영향까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과대추정이나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높다(이진실, 2019). 그럼에도 기존의 체험활동 관련 연구들은 통제변인을 선정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이진실(2019)은 매개효과 검증 연구에서 종속변인만 통제하기 보다는 매개변인에 대한 효과까지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통제변인은 인구학적 특성, 가족변인, 심리적 변인과 또래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유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험활동, 종교활동, 동아리활동,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강가영, 장유미, 2013)과 또래관계(아영아, 김진영, 2018)와 부모관계(최미혜, 2016)가 소개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 역시 성격이나 기질, 가족관계, 또래관

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기령, 최중진, 2016). 그리고 학교적응도 부모관계, 친구관계,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이경상, 2011).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통제변인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종교유무, 경제수준, 동아리활동유무, 중학생시기의 활동경험을 선정하였다. 가족변인으로는 부모의 애정적 태도와 부모 방임을, 심리적 변인은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을, 또래변인으로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선정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종속변인은 학교적응, 매개변인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독립변인은 측정변인으로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종교유무, 동아리활동유무, 중학생 시기의 활동경험, 부모애정, 부모방임, 우울, 자아존중감,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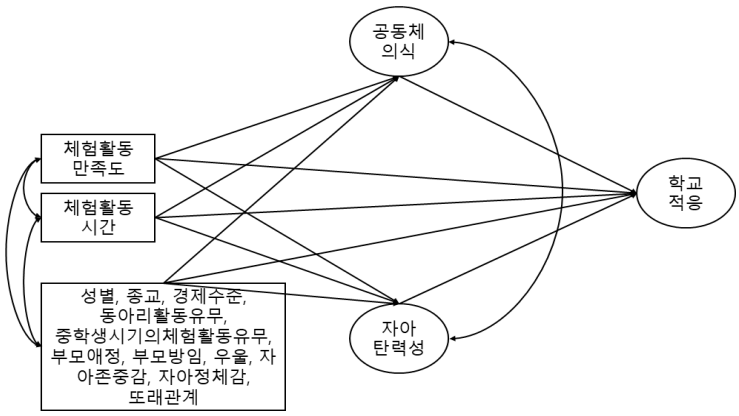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YPS 2010은 2010년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생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7년 동안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KCYPS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자료 중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조사하였기에 7차년도 자료는 2016년에 조사되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체험활동 만족도가 미치는 학교적응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체험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7차년도 조사에서 체험활동 경험이 있는 1,06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성별은 남학생 487명(45.9%), 여학생 575명(54.1%)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만족도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4 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체험활동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체험활동 관련 문항은 체험유무, 체험활동 참여시간, 체험활동 만족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본 연구는 참여시간과 만족도 문항을 선정하였다. 우선 체험활동은 9개의 체험활동영역으로 구성되었고, 9개의 영역별 참여시간을 합산하여 체험활동 참여시간으로 정의하였다. 만족도 또한 9개의 체험활동 영역의 만족도 문항을 합산하여 체험활동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학생 개인이 참여한 시간을 기술하도록 측정하였으며, 체험활동 만족도는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으면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많고, 만족도 역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험활동 참여시간 문항은 분포를 확인하여 로그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체험활동 참여시간 .703이며, 체험활동 만족도는 .956으로 나타났다.

2) 공동체의식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4 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체의식을 측정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내용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다.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제작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72로 확인되었다.

3) 자아탄력성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4 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점수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 즉,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14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활용하여 4개(자아탄력성1, 자아탄력성2, 자아탄력성3, 자아탄력성4)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는 홍세희와 정송(2014)이 제시한 균형할당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849로 나타났다.

4) 학교적응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4 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을 측정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습활동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등의 문항이며, 학교규칙 문항은 '학교규칙 학급 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등의 문항이며, 교우관계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등의 문항이며, 교사관계 문항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 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으면 학교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학습활동 .768, 학교규칙 .778, 교우관계 .612, 교사관계 .800으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2010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자료 중에서 초4 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제변인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여자=0, 남자=1, 종교는 없음=0, 있음=1로 더미처리하였고, 경제수준은 '매우 못사는 편' 1점에서 '매우 잘사는 편' 7점으로 구성하였다. 동아리 참여경험은 없음=0, 있음=1로 변경하였으며, 중학생 시기의 활동경험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체험활동을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단 한번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없는 경우=0, 있는 경우=1로 처리하였다. 부모애정은 4개 문항으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부모방임도 4개 문항으로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방임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은 총 10문항으로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문항은 역코딩하여 처리하였다. 자아정체감은 14문항으로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등의 문항이다.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또래애착 문항 중 의사소통

에 해당하는 3문항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과 MPLU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등의 기초통계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목적인 매개효과 검증은 MPLU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으며, 결측치 문제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χ^2, TLI, CFI, RMSEA, SRMR의 값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TLI와 CFI의 지수는 .90이상이면 양호한 것을 의미하며,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홍세희, 2000).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스트랩핑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종교활동은 '있음' 398명(37.5%), '없음' 664명(62.5%)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시기의 활동경험은 '없음' 47명(4.4%), '있음' 1,011명(95.6%)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은 '없음' 155명(14.6%), '있음' 907명(85.4%)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주요 변인의 빈도분석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여자	575	54.1	종교 유무	있음	398	37.5
	남자	487	45.9		없음	664	62.5
동아리 활동유무	없음	155	14.6	중학생시기 활동경험	없음	47	4.4
	있음	907	85.4		있음	1,011	95.6

주요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체험활동 만족도의 평균은 3.300, 체험활동 참여시간(로그)은 3.063으로 확인되었고, 공동체의식은 3.022~3.355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2.843~3.062로 나타났고,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학습활동 2.991, 학교규칙 3.217, 교우관계 3.255, 교사관계 3.080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 변인의 평균과 편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통제변인	경제수준	1062	1.00	7.00	4.310	.929	.345	.673
	부모애정	1062	1.00	4.00	3.180	.564	-.456	.311
	부모방치	1062	1.00	3.25	1.720	.506	.116	-.626
	우울	1062	1.00	3.90	1.764	.532	.439	-.103
	자아존중감	1062	1.00	4.00	3.036	.516	-.100	.382
	자아정체감	1062	1.25	4.00	2.748	.409	.208	.130
	또래 의사소통	1062	1.00	4.00	3.220	.515	-.022	.193
독립1	만족도	1062	1.25	4.00	3.300	.475	-.075	-.167
독립2	참여시간(로그)	1062	0.69	7.28	3.063	.977	.182	-.082
매개1	공동체의식1	1062	1.00	4.00	3.239	.590	-.228	.084
	공동체의식2	1062	1.00	4.00	3.022	.749	-.400	-.193
	공동체의식3	1062	1.00	4.00	3.050	.706	-.377	-.031
	공동체의식4	1062	1.00	4.00	3.355	.555	-.138	-.575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매개2	자아탄력성1	1062	1.00	4.00	3.048	.485	.204	-.035
	자아탄력성2	1062	1.33	4.00	2.914	.534	.256	-.296
	자아탄력성3	1062	1.50	4.00	2.899	.476	.317	.064
	자아탄력성4	1062	1.25	4.00	2.938	.486	.264	-.009
종속	학습활동	1059	1.00	4.00	2.991	.489	-.283	1.068
	학교규칙	1059	1.60	4.00	3.217	.457	.099	-.355
	교우관계	1059	1.80	4.00	3.255	.383	.154	-.383
	교사관계	1059	1.00	4.00	3.080	.563	-.092	-.278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시간(로그)은 정적상관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참여시간 및 체험활동 만족도와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모두 정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014	1																						
3	.065*	-.007	1																					
4	-.101***	.006	.012	1																				
5	-.032	.053	.037	.014	1																			
6	-.001	.102***	.184***	.055	.093**	1																		
7	-.005	-.043	-.187***	-.098***	-.105***	-.610***	1																	
8	-.164***	.009	-.212***	.003	-.008	-.377***	.336***	1																
9	.044	.057	.168***	.054	.057	.381***	-.332***	-.508***	1															
10	.027	.061*	.191***	.081**	.039	.353***	-.300***	-.485***	.483***	1														
11	-.053	.026	.122***	.056	.044	.456***	-.465***	-.400***	.397***	.367***	1													
12	.009	.042	.117***	-.011	.032	.197***	-.194***	-.238***	.256***	.284***	.253***	1												
13	-.023	.050	.057	.165***	.090**	.032	-.104***	-.003	.058	.098***	.063*	.069*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4	.043	.029	.166***	.000	.041	.282***	-.268***	-.245***	.274***	.329***	.365***	.246***	.090**	1										
15	-.034	.001	.134***	.001	.031	.244***	-.228***	-.200***	.262***	.246***	.292***	.270***	.119***	.488***	1									
16	-.046	.028	.214***	.003	.054	.252***	-.252***	-.180***	.220***	.255***	.282***	.244***	.047	.528***	.521***	1								
17	-.074*	.027	.116***	.029	.047	.236***	-.241***	-.143***	.271***	.237***	.271***	.268***	.106***	.431***	.381***	.431***	1							
18	.092**	.039	.146***	.016	.031	.326***	-.264***	-.391***	.454***	.404***	.369***	.293***	.097**	.371***	.305***	.283***	.262***	1						
19	.123***	.035	.128***	.000	.003	.272***	-.239***	-.337***	.369***	.349***	.387***	.257***	.077*	.361***	.341***	.284***	.223***	.597***	1					
20	.158***	.054	.135***	.005	.017	.341***	-.289***	-.399***	.455***	.458***	.382***	.251***	.110***	.384***	.316***	.269***	.260***	.576***	.600***	1				
21	.020	.037	.151***	-.006	.032	.346***	-.292***	-.386***	.470***	.389***	.444***	.254***	.080**	.380***	.333***	.313***	.285***	.621***	.617***	.541***	1			
22	.031	.055	.235***	.086**	.067*	.396***	-.359***	-.361***	.394***	.490***	.352***	.297***	.124***	.349***	.365***	.362***	.323***	.263***	.350***	.385***	.321***	1		
23	-.071*	.001	.153***	.038	.078*	.320***	-.318***	-.243***	.267***	.298***	.314***	.283***	.087**	.336***	.315***	.325***	.458***	.201***	.303***	.262***	.245***	.485***	1	
24	-.031	.024	.143***	.087**	.057	.443***	-.468***	-.418***	.418***	.485***	.551***	.316***	.144***	.453***	.369***	.350***	.406***	.336***	.453***	.424***	.425***	.522***	.524***	1
25	.074*	.025	.131***	.020	.065*	.426***	-.392***	-.358***	.361***	.379***	.456***	.306***	.097**	.352***	.331***	.287***	.316***	.362***	.397***	.403***	.410***	.473***	.381***	.553***

* $p<.05$, ** $p<.01$, *** $p<.001$

1: 성별, 2: 종교, 3:경제수준, 4: 동아리참여, 5: 중학생시기의 체험활동, 6: 부모애정, 7: 부모방치, 8: 우울, 9: 자아존중감, 10: 자아정체감, 11: 또래의사소통, 12: 만족도, 13: 참여시간(로그), 14: 공동체1, 15: 공동체2, 16: 공동체3, 17: 공동체4,
18: 자아탄력성1, 19: 자아탄력성2, 20: 자아탄력성3, 21: 자아탄력성4, 22: 학습활동, 23: 학교규칙, 24: 교우관계, 25: 교사관계

3.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은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는지 그리고 잠재변인 간 상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 4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은 .608~.734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부하량은 .741~.782로 확인되었다. 학교적응의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학습활동의 요인부하량은 .688, 학교규칙 .642, 교우관계 .795, 교사관계 .681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인은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변인인 측정변수와 매개변인 그리고 종속변인의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상관계수가 .641로 나타났으며,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상관계수는 .733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의 상관계수는 .596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측정모형	266.760***	69	.951	.963	.052	.033

*** $p<.001$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연구모형에서는 통제변수까지 투입한 모형이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연구모형의 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TLI	CFI	RMSEA	SRMR
연구모형	598.990***	180	.919	.935	.047	.030

*** $p<.001$

연구모형이 적합하여 각 변인 간 회귀계수를 확인하였다〈표 6〉. 체험활동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β=.206(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β=.068(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험활동 만족도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β=.117(p〈.001)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는 β=.069(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체험활동 만족도와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체험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β=.091(p〈.001)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β=.396(p〈.001)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연구모형의 회귀계수

종속		독립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공동체의식	통제변인	성별(남=1)	-.027	-.031	.026	-1.036
		종교(유=1)	-.013	-.015	.027	-.490
		경제수준	.054	.116	.015	3.575***
		동아리(유=1)	-.058	-.047	.036	-1.587
		중학생활동(유=1)	.017	.008	.052	.324
		부모애정	.068	.088	.035	1.939
		부모방임	-.066	-.077	.036	-1.848
		우울	.049	.061	.034	1.456
		자아존중감	.090	.108	.036	2.481*
		자아정체감	.160	.152	.044	3.646***
		또래 의사소통	.188	.225	.037	5.075***
	체험활동 만족도		.187	.206	.032	5.815***
	체험활동 참여시간(로그)		.030	.068	.015	2.045*

종속		독립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자아 탄력성	통제 변인	성별(남=1)	.076	.101	.020	3.845***
		종교(유=1)	.006	.007	.020	.279
		경제수준	.007	.016	.011	.609
		동아리(유=1)	-.044	-.041	.028	-1.555
		중학생활동(유=1)	-.037	-.020	.048	-.759
		부모애정	.061	.091	.025	2.418*
		부모방임	.015	.020	.026	.568
		우울	-.065	-.092	.025	-2.592**
		자아존중감	.197	.270	.028	6.947***
		자아정체감	.172	.187	.032	5.303***
		또래 의사소통	.178	.243	.025	7.199***
	체험활동 만족도		.092	.117	.022	4.151***
	체험활동 참여시간(로그)		.026	.069	.010	2.522*
학교 적응	통제 변인	성별(남=1)	-.003	-.004	.016	-.186
		종교(유=1)	-.011	-.016	.015	-.730
		경제수준	-.005	-.013	.009	-.564
		동아리(유=1)	.029	.031	.023	1.265
		중학생활동(유=1)	.023	.014	.038	.610
		부모애정	.070	.117	.022	3.173**
		부모방임	-.090	-.135	.022	-4.093***
		우울	-.059	-.093	.021	-2.802**
		자아존중감	.023	.035	.023	1.012
		자아정체감	.159	.192	.029	5.540***
		또래 의사소통	.111	.170	.023	4.854***
	체험활동 만족도		.065	.091	.020	3.324***
	체험활동 참여시간(로그)		.016	.045	.009	1.781
	공동체의식		.310	.396	.040	7.669***
	자아탄력성		.022	.024	.045	.623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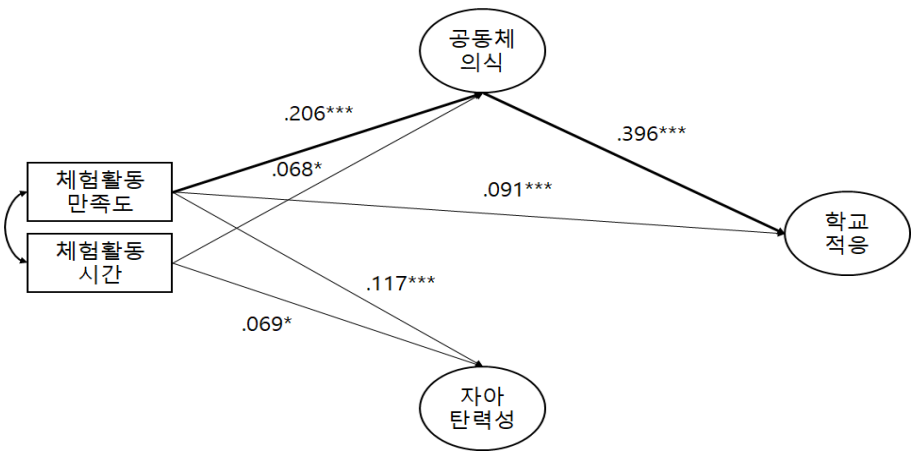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랩핑을 실시하였고, 부스트랩핑은 1,000번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 모두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체험활동 만족도는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만 매개효과를 보였다.

표 7

매개효과 유의성

경로	표준화 계수			Bootstrap(95%)	
	전체	직접	간접	Lower	Upper
체험활동 만족도 -〉 공동체의식 -〉 학교적응	.176	.091	.082*	.046	.117
체험활동 만족도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003	-.009	.014
체험활동 참여시간 -〉 공동체의식 -〉 학교적응	.074	.045.	.027	-.001	.055
체험활동 참여시간 -〉 자아탄력성 -〉 학교적응			.002	-.005	.008

* p<.05, ** p<.01, *** p<.001



* 굵은 실선은 매개효과

그림 2. 최종 모형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며, 이때 체험활동을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체험활동 만족도로 구분하여 양과 질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 참여시간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이정민, 정혜원, 2017), 봉사활동시간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지혜(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로 참여시간 역시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존의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보고된 연구(유춘옥 외, 2015; 주계순, 권일남, 2018)와 다른 맥락이다. 특히 유춘옥 외(2015)는 스포츠활동의 참여시간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연구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주요변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매개변인이나 종속변인에 미치는 주요변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활동 참여시간의 효과나 영향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체험 횟수나 시간 등의 양적인 측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통제변인 선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추후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시간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후의 연구는 가족변인과 심리적 요인 등의 주요변인을 통제하여 연구되어야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체험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 만족도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보다 체험활동 만족도가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에 미

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체험활동 참여시간이나 횟수 등의 양적인 부분보다는 체험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역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체험활동 참여시간보다 체험활동 만족이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는 자아탄력성보다는 공동체의식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험활동 만족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한 연구(문재우, 박재산, 2013)와 다른 맥락을 보였다. 그 이유는 통제변인을 선정하지 않아 잡음효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을 수 있으나 다른 변인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음으로 체험활동 만족도는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함의점을 제공한다. 비록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주요변인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유의한 것은 체험활동 만족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학교적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예시한다. 청소년 활동은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참여목적과 프로그램의 목표가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 또한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만 나타난 것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 공동체의식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활동 프로그램 내에서 집단 역동과 타인 이해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에서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을 보다 강조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만족도와 시간 모두가 공동체의식,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험활동 만족도만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질적으로 충족시켰는지가 학교적응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체험활동 시간보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내용을 우선

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 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개변수로 공동체의식과 자아탄력성을 투입한 결과 공동체의식만이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의 유연성과 변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집단차원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단 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동 프로그램 도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을 예시한다. 셋째,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활동 시간을 늘리고, 체험활동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 보면 공동체의식이 체험활동 만족도 뿐 아니라 체험활동 시간과도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체험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학교적응도 향상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개인, 학교, 사회 차원의 변인들을 통제변수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체험활동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독립변인이나 통제변인 투입을 통해 자아탄력성 변인의 영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험활동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은 종단적으로 규명되고 있기 때문이 이를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고관우, 남진열(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구지윤, 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doi:10.21509/KJYS.2016.07.23.8.287

김민선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체험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영향력 및 공동체 의식 매개효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지혜 (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김지혜, 유난숙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1), 1-19.

문재우, 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박기령, 최중진 (2016). 청소년 레질리언스(resilience) 연구 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0), 451-478. doi:10.21509/KJYS.2016.10.23.10.451

박주현, 이태자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박진화 (2017),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배화옥, 김현정 (2019). 아동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5**(2), 135-156.

성경주, 김재철 (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8), 383-406. doi:10.21509/KJYS.2017.08.24.8.383

송진숙 (2019). 청소년의 가족여가활동이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저널연구, 33**(1), 83-96. doi:10.21298/IJTHR.2019.1.33.1.83

아영아, 김진영 (2018).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종단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6**(1), 47-66. doi:10.35151/kyci.2018.26.1.003

오정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학교사회복지, 45,** 159-182.

유춘옥, 박갑준, 김승환 (2015). 중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자아탄력성, 학업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2), 109-126.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이경혜, 김혜인 (2018).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가 사회공동체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25**(9), 179-202. doi:10.21509/KJYS.2018.09.25.9.179

이윤주 (2004).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이응택, 곽현, 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이정민, 정혜원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변화와 체험활동의 시간효과. **중등교육연구, 65**(3), 573-599. doi:10.25152/ser.2017.65.3.573

이진실 (2019). 매개변인이 포함된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공변인 통제를 위한 모형설정 방법 비교: 모의실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3), 5-32. doi:10.14816/sky.2019.30.3.5

정순복, 양정남 (2014).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학교적응 유연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8,** 31-54.

조선경, 이응택, 이은경 (2016). 특성화고 재학생의 스트레스와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의 관계에서 우울과 학교부적응의 이중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20.

주계순, 권일남 (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1-25. doi:10.36697/skya.2018.4.2.1

차한솔, 김주일 (2015).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3), 177-203.

최경옥 (2017).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231-261. doi:10.19034/KAYW.2017.19.3.10

최미혜 (2018).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2), 59-92. doi:10.14816/sky.2016.27.2.59

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23-45.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4), 1-24. doi:10.15284/kjhd.2014.21.4.1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doi:10.1146/annurev.ps.46.020195.001405

Klohne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0*(5), 1067-1079. doi:10.1037/0022-3514.70.5.1067

Letzring. T. D., Block. J., & Funder. D. C. (2005).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generalization of self-report scales based on personality descriptions from acquaintances, clinicians, and the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395-422. doi:10.1016/j.jrp.2004.06.003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10.1037/0003-066x.56.3.227

McLaren, S., Schurmann, J., & Jenkins, M. (2015). The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GLB Youth Group; School, Teacher,

and Peer Connectedness; and Depressive Symptoms: Testing of a Path Model. *Journal od Homosex, 62*(12), 688-702. doi:10.1080/00918369.2015.1078207

Newman, B., Lohman, B. J., & Newman, P. R. (2007). Peer group membership and a sense of belonging: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ce, 42*(166), 241-263.

Sanchez, B., Colon, Y., & Esparza, P. (2005). The role of sense of school belonging and gender in the academic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619–628. doi:10.1007/s10964-005-8950-4

Sarason, S. B. (1977).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Oxford, England: Jossey-Bas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 sense of community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ctivities and school adaptation amongst adolescents

Lee, Eungtaek* · Oh, Seungg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and self-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ctivities and school adaptation.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7th year (2016) data of the 4 primary panels of KCYPS 2010. A total of 1,062 students were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a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level in experience activities and school adaptation.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was not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xperience activity and school adaptation, but the mediating effect of a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ctivity and school adaptation was found to be mediated by a sense of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atisfaction in terms of experience activities was more meaningful than participation levels in experience activities. Based on these results, a number of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experiential activities, sense of community, ego-resilience, school adaptation, mediating effect, KCYPS 2010

투고일: 2019. 12. 9, 심사일: 2020. 1. 31, 심사완료일: 2020. 2. 13

* Myong-Ji College Youth Development and Education